

량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사회 불평등 인식과 거주 단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예비연구*

김덕우**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설계 및 조사	

| 논문요약 |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량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직통생의 불평등 인식이 북한 내 거주 단위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직통생 115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합성 불평등 인식 점수를 종속변수로, 거주 지역 단위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71인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을 거쳐 확보한 40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 및 변수 사이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단계별 더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이 도심 변화가에 가까운 ‘동과 읍’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비 도심 혹은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리와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하여 불평등 인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 량강도 지역 내 직업군과 같은 전통적 계층 요인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젠더 위계화 현상은 장마당의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 이 논문은 2021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일반연구원
 ※ 유의한 의견을 주신 모든 심사위원분들과 방법론에 조언을 준 피츠버그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 장민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모든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러한 연구 결과는 시장화로 인한 북한 사회의 변화가 자본주의적 사회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북한 사회의 특수한 구조에서 배태된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제어: 거주 단위, 독립표본 t검정, 량강도,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인식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불평등 인식과 거주 지역 간 상관성을 규명한 기존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북한 사회 불평등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 장마당이 확산됨에 따라 불평등 현상이 북한사회에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분단체계로 인해 북한 사회 내부 현상에 대한 직접 검증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량 지표 확보의 어려움, 자본주의 현대 사회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은 다양한 연구 시도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규명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사회과학이 다양한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현실 사회를 분석하며 발전하는 동안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일상사, 도시사와 같은 몇몇 방법론의 도입에 만족해야 했다.

연구자는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 성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 및 분석틀을 도입할 필요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최근 활용되고 있는 불평등 인식 지표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지역 특성과의 상관성 연구를 북한이탈주민조사에 접목하는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불평등 인식과 지역 특성의 상관성을 규명한 장동호의 분산분석 모델에서 착안하여 미시 정량 지표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사회 불평등 인식을 종속 변수로, 거주 지역 행정 단위를 독립변수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박탈감이 사회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

를 고려하여 표본 적합도 확보를 위해 합성 불평등 변수를 구성하였다. 설문에 활용된 문항은 2014 KGSS와 2019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17-19년 국내 입국한 량강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직통생¹⁾)으로 설정하였다.

북한 사회 분석에서 지역 변수와 불평등 인식의 관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를 통해 북한사회의 불평등 측정을 위한 미시 경제 인식 지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에 수행되었던 다양한 북한 사회 기초 조사가 이 2차 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탐색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였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북한 사회 연구에서 불평등 이론의 적용 가능성

사회 불평등 조사에서 개인의 소득수준이라는 객관적 변수가 불평등 인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밝혀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도입하였다. 장동호(2011, 274)는 불평등 인식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빈곤관’에 대한 국내 지역별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커짐을 증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불평등을 ‘지역’과 ‘인식’이라는 변수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응답한 북한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점수가 정규성을 지니게 분포하고, 그 인식 수준이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 단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북한사회 역시 불평등한 부의 편중 현상이 실재하며, 그것을 개별 구성원이

1) 탈북 이후 제3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거주한 지 1년이 되지 않고 즉시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직통생’이라 부른다. 연구자는 조사 집단의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체류한 기간이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 외에도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표집 기준을 설정하였다.

부당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 설계를 그대로 북한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① 북한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과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야 함은 물론, ② 사회의 지역별 소득수준의 평균값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아들”로 표현될 만큼, 이미 북한 연구는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사회과학 분석대상으로 인식되었다(고유환 2019, 26). 하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에 자본주의 사회 분석에 활용된 방법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다. 한성훈, 홍찬숙 등은 쉬무엘 아이젠스타트(Shmuel N. Eisenstadt)의 “다층적 근대성”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사회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한성훈(2014, 76-82)은 근대화가 서구의 독자적 산물이자 유일한 개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개별 국가 및 사회마다 존재하는 역사·문화적 맥락의 해석을 통해 북한 사회를 분석할 수 있다는 넓은 의미의 접근을 강조한다. 반면 홍찬숙(2021, 280-299)의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으로 취급되며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던 북한 동원 체제 외부에서 경제활동과 일상을 영위하는 개인들이 고난의 행군 이후 자리 잡았음을 근거로 사회학 분석이 조심스럽게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비록 두 연구자가 주목한 부분은 다를지라도, 위 연구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사회학 이론 또는 분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북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연구 모델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한성훈의 논의가 북한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문화 및 비교역사사회학적 검토에 대한 것이라면, 홍찬숙은 이론 사회학 분과에서 도출한 연구 모델을 북한 사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2. 북한 사회 연구에서 ‘불평등 인식’과 ‘지역’변수의 적용을 위한 수정

학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

점은 크게 조건, 기회, 과정,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개인을 둘러싼 외부 요인, 즉 환경과 사회 구조에 대한 평가들로 구성된다(이웅·임란 2014, 94-97; 신광영 2016, 55-57; 황선재·계봉오 2018, 66-74). 이 평가는 그러나 소득 수준, 거시 경제 지표, 제도와 같은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주어진 외부 환경과 동시대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개인이 경험한 일상으로부터 형성된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불평등 인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불평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문항을 구성하고 문항별 측정된 결과값을 합산하는 합성변수를 활용하거나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이웅·임란 2014, 102-103; 황선재·계봉오 2018, 76-79).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평등 인식 점수 측정에는 위에 제시된 인간의 본성 이외에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탈북 동기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동기를 정의하는 문항의 구성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정치적 자유의 추구, 북한 체제에서 작동하는 통제 및 처벌에 대한 불만,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경제 문제의 해결, 해체된 가족공동체의 복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2011, 22-2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2, 42). 그런데 위에서 구성된 탈북의 동기는 사회학에서 정의하는 박탈의 개념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박탈이란 평등할 기회가 배제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불평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해외에서 불평등 인식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타운센드(Townsend)의 '박탈 지수'가 이러한 용례를 대표한다(김학수 1989, 188; 이웅·임란 2014, 97-98). 탈북의 동기를 이러한 사회학적 용어와 대응시킨다면 정치적 자유의 추구는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을 기회의 박탈로, 사회적 요인은 제도와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억압받지 않을 기회의 박탈로, 경제적 요인은 물질적 이유로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 박탈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박탈 가운데 하나를 경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개인의 불평등 인식 조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한 바 있다. 정치적, 물질적, 사회적 박탈을 경험한 이들은 그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면화되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인식 조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정해식 2015, 35; 여유진 2020, 64-65).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다면 참가자들이 응답한 북한사회의 불평등 인식 점수가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변수와 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포착되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직통생의 경우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측정 자료의 결과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할 확률, 즉 적절한 중심경향성 분포가 상실될 가능성이 다른 연구에 비하여 높다(곽재민 2013, 172).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과값이 정규분포에 가깝게 분포될 수 있는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설계하는 데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변수 설정을 위하여 연구자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 형성 과정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사회 구조와 제도에서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김용철 외 2018, 104-107). 그런데 북한 사회는 전후복구 사업을 거치며 타 도시와의 교류를 극단적으로 배제한 형태인 ‘지역자립체제’로 발달했고(김병로 1999, 19-44; 오승렬 2002, 21-24; 조남훈 2013, 40-43),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도시별로 지니고 있는 상이한 자원과 입지여건에 따라 경제 활동의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개인이 겪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도 분화되었다(양문수 2021, 54). 거주 지역, 직업, 출신성분 등 개인이 속한 환경과 지위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험하는 박탈의 원인과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다.²⁾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종속 변수가 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단일 변수와 합성 변수로 구분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단일 변수 측정에는 북한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2) 연구자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경험에 따르면 동일한 농장원이라 하더라도 곡창지대에 속하며 일정 수준 기계화가 진행된 황해남도 출신 농장원 a와, 농장의 규모가 작고 협동농장의 자산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량강도 보천군 지역 농장원 b의 북한 농업 정책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이 사례는 북한 문헌을 통해서도 교차 검증 가능하다(최기호 2008, 22-26).

를 물었고, 합성 변수는 북한 사회 불평등을 정치, 지역격차, 사회적 요인(법, 제도)과 개인의 역량 요인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개인의 능력의 경우 수집된 값을 역산하는 처리과정을 거쳤다(이용·임란 2014, 103-104; 김용철 외 2018, 114-117; Babbie 2007, 215-216).

마지막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불평등 인식과 지역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되는 소득수준별 지역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읍”, “리, 구”를 지역의 소득수준을 나누는 척도로 삼았다.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에 관한 규정은 2008년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도(직할시), 시(구역), 군 및 동, 읍, 리, (로동자)구가 위치하는데(법률출판사 2012, 82), 규모로 볼 때, 동>리>구의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읍의 경우는 군청이 위치하는 리 구역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군 행정구역 내 변화가로 인식된다(김민아 2019, 10). 따라서 지방 하부 행정 단위에 따른 동, 읍과 리, 구의 집단 구분은 도시와 시골 또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때 동과 읍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로, 리와 구는 이와 대비되는 ‘비 도시’, 즉 시골로 대표되는 것이다(임을출 외 2015, 49-57).

Ⅲ. 연구 설계 및 조사

1. 연구 가설의 수립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적 불평등 인식’은 실증 분석에 활용되는 양적 지표이다. 그러나 불평등이란 개념이 지니는 특성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이 느끼는 불평등의 정도는 주변과 자신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김학수 1989, 188-19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지역의 단위별로 불평등 인식에 관한 분산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불평등 인식 점수가 높은 지역 단위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고, 불평등 인식 점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해석되어야 한다(장동호 2011, 27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사회 내 개인 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지역 단위와의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본 연구의 영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영가설 1: 지역 단위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인식의 평균이 모두 같다.

대립가설 1: 지역 단위 집단별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불평등 인식 값의 평균 차이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박탈 경험이 개인의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조사를 설계한 바, 아래와 같은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영가설 2-1: 단일 불평등 인식 값이 정규성을 지니거나, 단일 불평등 인식과 합성 불평등 인식 분포의 정규성이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대립가설 2-1: 단일 불평등 인식 값의 분포가 정규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반면 정치, 지역, 계층, 능력의 항목으로 구성된 합성 불평등 변수 값은 정규성을 지닐 것이다.

2. 조사 개요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에 기초하여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한국에 입국한 량강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40명의 응답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집단 전수 추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본 조사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확보한 북한이탈주민 115명에게 사전 전화통화를 진행, 설문 목적 및 조사 방법, 응답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에 동의한 71명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였고, 확인 결과 표집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문항에 답변을 하지 않은 참가자의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표 1> 연구 수행 체계도

1단계	연구 설계 및 조사 문항 설정 - 선행연구 검토 및 중간 평가 결과 반영, 조사 계획 수정 - 예비 문항을 바탕으로 사전 인터뷰 진행
2단계	본 조사 - 조사기간: 2021년 9월 3일-19일 - 조사방법: 자기 응답식 설문지 활용 전화/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2012년 이후 북한을 떠난 직통생 115명
3단계	자료 확인 및 코딩, 분석 - 탈북 시점 및 거주 지역 확인, 결측값 처리
4단계	연구 결과 및 합의 도출

▪ 저자 작성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2014 KGSS와 2019 한국복지패널조사, 북한 사회변동2019(천경효 외 2020, 144-155)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특성(모집단 추계의 어려움,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내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평등 인식의 표본오차가 유의미하게 도출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성 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때 불평등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의 종류로 정치, 지역 격차, 계층 격차, 개인의 능력(역문항) 등을 선택하였고 측정 단위는 모두 리커트 7점 척도로 하였다.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평등 인식과 거주 행정 단위와의 관련성을 독립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지정한 독립 변수 외에 통제변수에서 불평등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될 경우,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여 분석의 검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신뢰도-타당도 검정

분석에 앞서, 구성된 설문이 불평등 인식 이론에 입각한 연구 설계의 목적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유의미하게 달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불평등 인식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적합한 종속변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단일 불평등 변수와 합성 변수를 각각 측정하였다. 설계에 따른 합성 변수 측정 문항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측정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7을 활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합성 변수를 구성하는 불평등 인식 항목들의 KMO 측도의 값이 0.618을 기록한 반면, 단일 변수를 포함한 5개 변수의 KMO 측도는 0.522를 기록하였다. KMO 측도의 값이 0.6 이상일 경우 측정 변수 사이의 요인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합성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 타당도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곽재민 2013, 310).

<표 2> 변수 타당도 검정을 위한 요인검정 결과

요인분석 1		요인분석 2	
KMO MSA 검정	0.618	KMO MSA 검정	0.5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2.39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7.150
	자유도: 6		자유도: 10
	P: 0.001***		P: 0.002***
*p<0.5, **p<0.1, ***p<0.01			

▪ 저자 작성

다음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인 불평등 인식 요인과 관련된 측정값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 변수와 정치, 지역, 직업, 능력 등 합성 변수를 구성하는 개별 불평등 인식 변수, 그리고 합성 변수를 검정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도 측정을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크론바 알파(Cronbach α)값이 0.749를 기록하였다. 문항의 신뢰도의 기준이 되는 신뢰성 계수의 최소값으로 0.7 이상이 요구되는 바,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구성된 본 조사의 연구방법은 타당도와 신뢰도의 최소 여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³⁾

3) 단일 불평등 점수를 측정하는 변수항을 제거할 경우 크론바 알파값이 0.778으로 상

<표 3> 불평등 인식 신뢰도 검토

구분	항목	신뢰도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CITC)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불평등 인식	1 단일 불평등 인식 변수	0.143	0.778
	2 정치 불평등 인식 요인	0.665	0.676
	3 지역 불평등 인식 요인	0.548	0.718
불평등 인식	4 계층 불평등 인식 요인	0.640	0.683
	5 능력 요인(역문항)	0.498	0.727
	6 합성 변수	0.958	0.610

▪ 저자 작성

IV. 분석결과

1. 측정 및 기술통계 분석

전체 40명 응답자의 성비는 1:2.6의 비율로 남성 11명, 여성은 29명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0명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고, 4-50대가 13명, 60대 이상이 7명이었다. 자신을 당원이라고 응답한 참가자는 8명이었다. 직업군으로는 하위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군관과 56세 이상의 부양, 가사, 학생, 무직자가 각 16명으로, 상위 계층으로 인식되는 당일군, 법기관, 보위부, 안전원과 전문계층이 각 4명으로 확인되었다. 시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먼저 응답자의 47.5%인 19명이 장마당에서 장사 또는 부업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 역시 절반이 넘는 21명으로 확인되었다. 시장 이용 빈도에서는 주 1회 이상 이용했다고 답변한 인원이 전체 인원의 65%인

승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양한 변수들의 연구 적합성을 판단하는 예비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 점을 고려하여 단일 불평등 변수를 유지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26명이었다. 그러나 시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역시 6명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거주 당시 본인의 주관적 소득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5명이었으며 중층은 23명 상층은 12명이었다. 탈북 동기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참가자의 절반인 20명으로 파악되었고, 정치가 16명, 사회가 4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박탈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유형	변수명	응답범주	빈도(%)	평균(점)
종속변수	합성불평등점수	합성측정(28점 만점)		17.33(61.9)
(개별문항)	정치 격차	리커트 7점 척도	40(100)	5.0
	지역 격차			5.48
	계층 격차			4.45
	능력(역 문항)			2.40
대조군	단일불평등점수	리커트 7점 척도		5.80(82.9)
독립변수: 행정 단위	거주 지역 1	시	33(82.5)	
		2. 군	7(17.5)	
	거주 지역 2	1: 동, 읍	35(87.5)	
		2: 리, 구	5(12.5)	
탈북 동기	정치	1	16(40)	
	경제	2	20(50)	
	사회	3	4(10)	
인구 통계	성별	1: 남	11(27.5)	
		2: 여	29(72.5)	
	세대	1: 30대 이하	20(50)	
		2: 40대 이상-50대 이하	13(32.5)	
		3: 60대 이상	7(17.5)	
	직업	1: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군관, 종업원 등	16(40)	
2: 당일군, 법기관, 보위부, 안전원 등		4(10)		

변수 유형	변수명	응답범주	빈도(%)	평균(점)
		3: 의사, 교사, 과학자, 외화벌이 일군	4(10)	
		4: 부양, 가사, 학생, 무직 및 기타	16(40)	
	거주지역 (시, 군)	김정숙군	1(2.5)	
		2. 김형직군	2(5)	
		3. 보천군	3(7.5)	
		4. 삼지연군	1(2.5)	
		5. 혜산시	33(82.5)	
기타	주관소득수준	1: 상	12(30)	
		2: 중	23(57.5)	
		3: 하	5(12.5)	
	당원여부	1: 당원	8(20)	
		2: 비당원	32(80)	
	시장이용빈도	1: 주 1회 이상	26(65)	
		2: 월 5회 미만	8(20)	
		3: 2-3개월간 1-2회	4(10)	
		4: 6개월간 1회 이하	2(5)	
	장사/부업 경험	1: 있다	19(47.5)	
		2: 없다	21(52.5)	

▪ 저자 작성

인구통계 요인 해석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남녀 성별에 따라 계층 및 당원 가입 여부, 그리고 장사 경험에서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당원이 6명, 당일군 및 법기관 종사자, 외화벌이 일군이 3명으로 75%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25%에 그쳤다. 반면 부양을 포함한 무직의 87.5%는 여성이었으며, 장사 경험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18.1%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여성은 58.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북한사회 체계에 젠더 위계가 제도화되었다는 주장이 (박영자 2017, 304-307) 설명력을 지닌다.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산업화와 계획경제 국가 건설, 전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

서 정치와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경공업과 농업, 그리고 양육을 포함한 재생산노동은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박영자 2017, 24-47)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한이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주장에 힘을 신는다.

<표 5> 인구 통계 변수 사이 교차 분석 및 카이제곱(x²) 검정 결과

구분		당원 ^a	직업군 ^b				장사 경험 ^c	
			1	2	3	4	유	무
성별	남자	6	6	3	0	2	2	9
	여자	2	10	1	4	14	17	12

▪ a: $\chi^2 = 11.317$, 자유도 = 1, 유의확률(p) = 0.001
 b: $\chi^2 = 8.652$, 자유도 = 3, 유의확률(p) = 0.034
 c: $\chi^2 = 5.230$, 자유도 = 1, 유의확률(p) = 0.022
 ※ 직업군 숫자범주는 표 4 참조
 ▪ 저자 작성

또한 직업군과 주관적 소득수준에서 별도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김병로(2013, 184-188), 정은미(2015, 104)가 밝혀낸 기존 연구 성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 사회의 사적 경제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북한 계층관계가 약화되고 직업 요인의 상관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밝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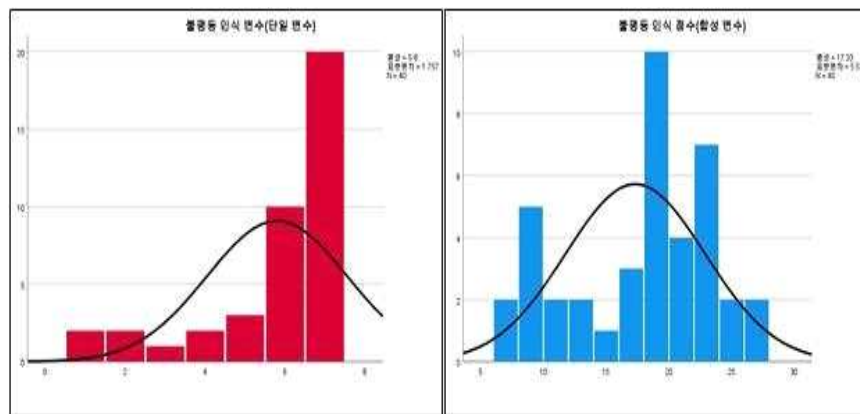
다음으로 측정된 종속변수를 확인하였다. 불평등 인식 점수의 평균값은 단일 불평등 인식 5.80,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요인 5.0, 지역요인 5.48, 직업요인 4.45, 능력요인 2.40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북한사회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으며,⁴⁾ 지역, 정치, 계층 순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단일 불평등 점수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6, 7점을 선택하였음(평균 5.8, 82.9점)이 드러난 반면, 종속변수인 합성 불평등 인식 점수는 28점 기준으로 평균 17.33(61.9)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4) 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불평등 인식 평균이 7점 척도 기준 5.02인 것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여유진 2019, 258).

효과적인 실험을 위해 적합한 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검토 결과가 타당함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단일 불평등 변수와 합성 불평등 변수 사이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영가설 2-1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종속변수 정규분포곡선 비교(좌 단일 변수, 우 합성 변수)



• 저자 작성

2. 지역 변수에 따른 탈북민의 불평등 인식 점수 변화

연구의 독립변수인 지역 단위 변수 항목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 단위의 경우, 시-군을 기준으로 볼 때 응답자의 82.5%인 33명이 시 단위인 해산에서 생활했다고 답하였으며 군 단위 거주자는 김정숙군 1명, 김형직군 2명, 보천군 3명, 삼지연군 1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화가인 동-읍 거주자는 35명, 낙후 지역인 리-구 거주자는 5명으로 확인되었다. 해산시 거주 응답자 33명이 ‘동’, 보천군 거주 응답자 3인 가운데 2인이 ‘읍’ 주소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군 응답자 분포와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수 응답자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시-군 집단 역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집단별 유의미한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변수별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구 지표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탐

색하여 독립변수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직업군과 불평등 인식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확률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직업군별 정규성 검정을 거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088점으로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만족하고($p > 0.05$), F값이 3.360, 유의확률이 0.029($p < 0.05$)를 기록하여 그룹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Scheffe 사후검정을 거쳐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군관 집단과 부양, 학생, 무직 및 기타 집단에 평균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고(5.438, $p < 0.05$),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군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보다 사회를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서 종속변수와 상관성이 발견됨에 따라 독립검정 이후 상호작용 효과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단위 변수 가운데 군 단위 및 리-구 단위 거주응답자의 수가 30인 미만임에 따라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고 왜도와 첨도 역시 절대값 2보다 작으므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원 외 1989, 51-53).

<표 6> 군, 리-구 거주 응답에 대한 정규성 검정

구분	그룹	Shapiro-Wilk			왜도	첨도
		통계	자유도	유의확률		
지역단위	군	.873	7	.198	1.182	.435
	리-구	.923	5	.547	1.090	.875

▪ 저자 작성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시와 군, 동-읍과 리-구의 범주로 구성된 지역 단위에 대한 합성 불평등 인식 점수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각각 .849와 .470을, 기록하여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이에 t-검정통계량은 지역 단위 1이 2.304, 단위 2가 2.529였고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작았으므로 두 집단 범주 사이 불평등 인식 점수에 차이가 검증되었다.

<표 7> 지역 그룹별 기회 불평등 인식 분산분석 2: 지방행정구역

구분	그룹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지역 단위1	시	18.21	5.255	2.304	0.027
	군	13.14	5.460		
지연 단위2	동, 읍	18.11	5.351	2.529	0.016
	리, 구	11.80	3.962		

▪ 저자 작성

독립변수 1과 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량강도 거주민을 지역 단위에 따라 범주로 구분할 경우 군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리와 구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하여 동과 읍에 거주하는 주민이 북한 사회를 보다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영가설 1은 지역 단위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인식 점수의 평균이 같다는 것이므로 영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량강도 지역의 경우 시, 그리고 동과 읍 단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 사이 소득 수준이 군과 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 소득 수준에 비하여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량강도 지역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격차가 혜산시와 그 외 군 단위에서, 그리고 량강도 전체의 동, 읍과 리, 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탐색적 수준에서 확인된 것이다.

3. 변수 사이 상호작용효과 검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독립변수 외에 직업군에서 확인됨에 따라 이원분산분석 또는 공분산분석을 진행하여 변수 사이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직업군의 경우 범주형 명목척도로 구성되었고, 반복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적용이 제한된다. 이에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Dummy Regression)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를 탐색하는 것으로 변수 사이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을 대신하였다(김경화 2016, 202-209).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리-구를 대조군으로 하는 동-읍 지역 변수와 다른 세 가지 직업군 변수를 참조하는 로동자군 변수를 포함하는 회귀모델이 가장 높은 더미회귀모형 결정계수 R2 값(.316)과 유의확률(p<0.01)을 보였다. 이 모델에서 시-군 변수는 변수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되었다. 도출된 더미회귀모형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사회 불평등 인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분	비표준 화계수 B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 VIF	
					0차	편상관		
모형2	(상수)	11.800	-	3.884	.000	-	-	-
	지역단위 (동-읍)	7.390	.444	3.227	.003	.380	.469	1.024
	직업군 (로동자)	4.707	.419	3.045	.004	.351	.448	1.024

- 종속변수는 합산 불평등 인식 점수
- 저자 작성

분석에 따른 회귀식이 “Y=B0+B1x1+B2x2”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군 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리-구 참조군을 기준으로 동-읍 변수가 종속변수인 합성 불평등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동-읍 변수의 상관계수 및 편상관계수 값 모두 가 직업군 변수에 비하여 각 0.030, 0.021 높게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이 모두 10 이하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모형의 문제 발생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곽재민 2013, 249-27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북한 주민의 불평등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 변수를 발견

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 지역 행정 단위인 ‘동, 읍’과 ‘리, 구’를 명목 척도로 하는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② 4가지 항목으로 불평등 인식 점수를 측정, 결과값을 합산하여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③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집단 사이 차이를 확인하고, ④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사이 상호작용 효과를 판별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의 결과값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동-읍과 리-구로 구성된 지역 단위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변화가랄 수 있는 동-읍 주민이 주변부 지역으로 볼 수 있는 리-구 주민에 비해 불평등 인식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동-읍, 리-구 단위보다 낮은 상관성을 기록하였으나 시와 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적으로 량강도 지역 내에서 동-읍, 리-구를 범주로 하는 도심-외곽 지역 간 발전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동-읍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 소득 격차를 상당 수준 인식하고 있음이 이론적으로 검증되었다 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역 단위 사이 소득수준의 차이는 량강도 내 시-군 단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표집을 확보하지 못한 점, 량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과소 사례라는 점 등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에 따라 표집을 확대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군 등의 변수를 통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 및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시/비도시, 중심부/주변부 주민 사이에 불평등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첫째, 지역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도시 외곽, 주변부 주민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으며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평양에 자원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 도시에는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간접 연구 결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정권이 평양을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혁명의 전시장이자 특권층의 도시로 발전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더하여 지방에서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제 격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예비적으로 확인한 사례라 하겠다. 향후 지역의 주변부일수록 부의 창

출이 중심부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읍 거주 주민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점은 타 직업계층 간의 차이라는 점이 아닌, 북한 내 하위 직업군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화로 인하여 하위 계층에서도 소득 격차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분석 결과들이 시장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근대적 사회 문제와 유사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의 근대화 요소가 태동되고 있다는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학의 주요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인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연구의 배경과 분석틀의 분석에 천착하여, 북한 사회 연구에 적용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성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단의 특수성이 완화된다면 도시-시골(rural-urban) 격차 분석과 같은 연구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원·김윤태·송정현·이원재·임필순 (1989). “기획/다변량 정규성에 관한 검정법.” 『통계상답』. 4집. 2호, pp. 49-68.
- 고유환 (2019).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집. 1호, pp. 6-32.
- 곽재민 (2013). 『리서치와 통계분석』. 인포마.
- 김경화 (2016). “이주민 지원사업의 민관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지자체와 민간비영리기관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Vol. 17. No. 3, pp. 191-218.
- 김민아 (2019). “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김일성 시기 도농연계이론을 바탕으로.” 『농촌건축』. Vol. 21. No. 4, pp. 9-16.
- 김병로 (1999).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통일연구원.
- _____ (2013).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pp. 171-213.
- 김상욱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용철·조영호·신정섭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인의 계급의식: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계급의식에 미치는 영향.” 『OUGHTOPIA』. Vol. 33. No. 1, pp. 99-134.
- 김학수 (1989). “불평등·불공평 인식과 한국 언론변동 활동.” 『사회이론』. 제7호, pp. 184-241.
- 양문수 (2021). “북한의 사회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량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1호, pp. 54-85.
- 여유진 (2020).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1권. 1호, pp. 59-89.
- 오승렬 (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 이용·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Vol. 34. No. 4, pp. 93-122.
- 임을출·이종운·박수성 (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장동호 (2011). “거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대중의 불평등 인식수준과 빈곤관의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집, pp. 259-284.

- 정은미 (2015).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집. 2호, pp. 75-109.
- 정해식 (2015).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 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1권, pp. 23-35.
- 조남훈 (2013).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KDI북한경제리뷰』. 제15권. 제5호, pp. 39-60.
- 침경호·강채연·박상민·이혜원·정은미·임경훈·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최기호 (2008). “사회주의농촌에서 지대들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는 문제의 본질과 내용.” 『경제연구』. 2호, pp. 22-26.
- 한성훈 (2014). “북한 사회주의 이행의 근대성과 일상의 변동.” 『현대북한연구』. 17권. 3호, pp. 69-99.
- 홍찬숙 (2021).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3집. 2호, pp. 280-322.
- 황선재·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Vol 41. No. 4, pp. 65-88.
- Babbie, Earl R. (2007). 『사회조사방법론 제11판』. 고성호 외 역. 도서출판 그린.

2. 기타

-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2011).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 늘봄플러스.
- 여유진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논문투고일 : 2022년 08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08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09월 14일 |

| ABSTRACT |

A Pilot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Residential Districts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yanggang Province

Kim, deokwoo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yanggang Province perception of inequality diff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residential areas in North Korea. For this study, 115 direc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et as targets for analysis, and a Independent-Samples T-test were conducted using the recovered questionnaire of 40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spondents living in 'dong and eup' where the residential area is close to the city and downtown had higher inequality perception scores than those living in 'ri-gu', which can be called surrounding areas or rural area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are affecting the urban-rural gap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tween urban residents.

- Key words: Independent-Samples T-test, Inequality Perception, North Korean Defectors, Residential District, Ryanggang Province